

-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선호체계에 있어서 이행성(transitivity)이 성립한다면,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할 수 있다.
  - 두 재화가 완전대체재일 경우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그려진다.
  -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생겼다는 것은 한계 대체율체감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두 재화 중 한 재화가 비재화(bads)일 경우에도 상품조합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수준을 나타낸다.

- 철수는 장롱 안에서 현금 10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A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 인한 본원통화와 협의통화(M1)의 즉각적인 변화는?
  - 본원통화는 100만원 증가하고, 협의통화는 100만원 증가한다.
  - 본원통화는 100만원 감소하고, 협의통화는 100만원 감소한다.
  - 본원통화는 변화가 없고, 협의통화는 100만원 증가한다.
  - 본원통화와 협의통화 모두 변화가 없다.

-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ies fronti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효용가능경계 위의 점들에서는 사람들의 한계대체율이 동일하며, 이 한계대체율과 한계생산변환율이 일치한다.  
 ㄴ. 어느 경제에 주어진 경제적 자원이 모두 고용되면 이 경제는 효용가능경계 위에 있게 된다.  
 ㄷ.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에서 생산된 상품의 조합을 사람들 사이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용수준의 조합을 효용가능경계라고 한다.

-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R&D 모형에서 기술진보는 지식의 축적을 의미하며, 지식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다고 본다.
  - R&D 모형과 솔로우(Solow) 모형은 한계수확체감의 법칙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기술진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솔로우(Solow) 모형과 달리 AK 모형에서의 저축률 변화는 균제상태에서 수준효과뿐만 아니라 성장효과도 갖게 된다.
  - AK 모형에서 인적자본은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 다음 중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에 따른 예측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만족 수준 한 단위가 현금 1만원과 동일한 수준의 효용이다.)

김 씨와 이 씨가 한집에 살고 있다. 평상시 두 사람의 만족 수준을 100이라고 하자. 김 씨는 집 안 전체에 음악을 틀고 있으면 만족 수준이 200이 된다. 반면, 이 씨는 음악이 틀려져 있는 공간에서는 만족 수준이 50에 그친다.

-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든지 집 안 전체의 음악 재생여부는 동일하다.
-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한 권리가 이 씨에게 있는 경우 둘 사이에 자금의 이전이 발생한다.
-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한 권리가 김 씨에게 있는 경우 그는 음악을 틀 것이다.
-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한 권리가 이 씨에게 있는 경우 집 안은 고요할 것이다.

-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쌀 시장에 가격상한제(price ceiling)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쌀 농사에 유리한 기후 조건으로 쌀 공급이 소폭 증가했을 때 예상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시장 균형가격은 과거나 지금이나 가격상한선보다 높다.)
  - 규제로 인한 자중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감소한다.
  -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이 하락한다.
  - 공급자 잉여가 감소한다.
  -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 케인즈(J. M. Keynes)의 단순 국민소득 결정모형(소득-지출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한계저축성향이 클수록 투자의 승수효과는 작아진다.
  - 디플레이션 갭(deflation gap)이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실업이 유발된다.
  - 임의의 국민소득 수준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할 때, 그 국민소득 수준에서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한다고 한다.
  - 정부지출 증가액과 조세감면액이 동일하다면 정부지출 증가가 조세감면보다 국민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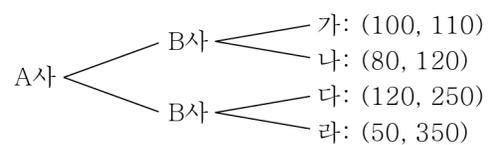
- A국, B국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고, 생산가능곡선은 각각  $X=2-0.2Y$ ,  $X=2-0.05Y$ 이다. A국과 B국이 X재와 Y재의 거래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X재의 가격은?
  - Y재 4개
  - Y재 11개
  - Y재 21개
  - 거래가 불가능하다.

- 다음은 먼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하여 고정환율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과 ㉡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 ㉠ )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해외로부터 자본 유입이 발생한다. 외환 시장에서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여 외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의 하락 압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고정환율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변할 수는 없다. 결국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외화를 ( ㉡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확대 | 매입 | ② | 확대 | 매각 |
| ③ | 축소 | 매입 | ④ | 축소 | 매각 |

- 아래의 그림은 기업 A와 B의 의사결정에 따른 이윤을 나타낸다. 두 기업은 모든 선택에 대한 이윤을 사전에 알고 있다. A사가 먼저 선택하고, B사가 A사의 결정을 확인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 두 회사 간의 신빙성 있는 약속이 없을 때 각 기업이 얻게 되는 이윤의 조합은? (단, 괄호 안은 A사가 얻는 이윤, B사가 얻는 이윤을 나타낸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1.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가 있다. 정부재정이 균형예산이고 상품수지(무역수지)가 균형일 때  $a$ 값은? (단,  $Y$ 는 국민소득,  $C$ 는 소비,  $I$ 는 투자,  $G$ 는 정부구매,  $NX$ 는 순수출,  $T$ 는 조세이다.)

•  $Y=C+I+G+NX$   
 •  $C=250+0.75(Y-T)$ ,  $T=aY$ ,  $I=750$ ,  $Y=5,000$

- ① 0.1      ② 0.2      ③ 0.3      ④ 0.4

12.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조업을 중단하더라도 남아 있는 계약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는 고정비용이지만 매물비용은 아니다.
- ② 평균총비용곡선이 U자 모양일 때, 한계비용은 평균총비용의 최저점을 통과하지 않는다.
- ③ 한계수확감 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은 감소한다.
- ④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평균총비용곡선과 평균가변비용곡선이 모두 U자 모양일 때,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은 평균총비용의 최저점보다 더 낮은 생산량 수준에서 발생한다.

13. 2020년도에 어떤 나라의 밀 생산 농부들은 밀을 생산하여 그 중 반을 소비자에게 1,000억원에 팔고, 나머지 반을 1,000억원에 제분회사에 팔았다. 제분회사는 밀가루를 만들어 그 중 절반을 800억원에 소비자에게 팔고 나머지를 제빵회사에 800억원에 팔았다. 제빵회사는 빵을 만들어 3,200억원에 소비자에게 모두 팔았다. 이 나라의 2020년도 GDP는? (단, 이 경제에서는 밀, 밀가루, 빵만을 생산한다.)

- ① 1,600억원      ② 2,000억원  
 ③ 3,200억원      ④ 5,000억원

14. 형과 동생이 한집에 살고 있다. 형은 매일 5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동생은 현재 소득이 없다. 형은 소득 5만원의 일부를 떼어 매일 동생의 용돈으로 나누어 주고자 한다. 각 소비 금액에 대한 형과 동생의 효용은 아래 표와 같다고 가정한다. 형이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 단순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한다고 할 때, 매일 동생에게 나누어 주는 금액은?

소비금액	0만원	1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형의 효용	0	60	70	80	90	100
동생의 효용	0	10	20	30	50	70

- ① 1만원      ② 2만원      ③ 3만원      ④ 4만원

15. A국의 명목이자율이 6%이고 B국의 명목이자율이 4%라고 하자. 양국의 실질이자율이 동일하고 구매력평가설이 적용된다고 할 때, 피셔방정식을 이용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B국의 기대인플레이션보다 2%p 더 높고, A국의 통화가치는 B국의 통화에 비해 2%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② 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B국의 기대인플레이션보다 2%p 더 높고, A국의 통화가치는 B국의 통화에 비해 2%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 ③ 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B국의 기대인플레이션보다 2%p 더 낮고, A국의 통화가치는 B국의 통화에 비해 2%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 ④ 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B국의 기대인플레이션보다 2%p 더 낮고, A국의 통화가치는 B국의 통화에 비해 2%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6. 어느 기업의 자본의 한계생산물( $MP_K$ )이  $50-0.1K$ 라고 하자. 자본재 가격은 단위당 10,000원, 감가상각률은 5%로 일정하며, 생산물 가격은 단위당 200원으로 일정하다. 실질 이자율이 초기 10%에서 5%로 하락하였을 때, 이 기업의 초기 자본량( $K_0$ )과 바람직한 투자수준( $I$ )은? (단,  $K$ 는 자본량이다.)

- ①  $K_0=375$ ,  $I=25$       ②  $K_0=375$ ,  $I=50$   
 ③  $K_0=425$ ,  $I=25$       ④  $K_0=425$ ,  $I=50$

17. 실업과 인플레이션 및 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총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은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상충 관계를 가져온다.
- ②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합리적 기대하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확장적 통화정책도 단기적으로 실제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시킬 수 없다.
- ③ 프리드만(M. Friedman)과 펠프스(E. Phelps)의 기대가 부가된 필립스 곡선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은 적응적 기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④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재정확대 정책은 필립스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18. A국은 자동차 수입을 금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은 2억원이고 판매량은 40만대에 불과하다. 어느 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자동차 시장을 전격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개방 이후 자동차 가격은 국제시세인 1억원으로 하락하였고, 국내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량도 60만대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직선이며, 공급곡선은 원점을 지난다.)

- ① 국내 소비자 잉여 증가분은 국내 생산자 잉여 감소분의 2배 이상이다.
- ② 국내 사회적 잉여 증가분은 국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크다.
- ③ 국내 소비자 잉여는 예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④ 국내 사회적 잉여 증가분은 국내 소비자 잉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다.

19. X재의 생산자는 A와 B, 두 기업밖에 없다고 하자. X재의 시장수요함수는  $Q=32-0.5P$ 이고, 한계비용은 24로 일정하다. A와 B가 공모해서 독점 기업처럼 이윤극대화를 하고 생산량을 똑같이 나누기로 한다면, 기업 A가 얻는 이윤은? (단, 고정비용은 0이다.)

- ① 20      ② 64      ③ 88      ④ 100

20. 갑작스러운 국제 유가 상승으로 A국에서 총생산이 줄어 들고 물가가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하였다. <보기>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부 장관이 나눈 대화이다. 본 대화에 대한 논평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중앙은행 총재: “무엇보다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이자율을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 재무부 장관: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 ①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은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실업률을 보다 높일 수 있다.
- ② 재정확대 정책은 자연산출량(natural rate of output)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 ③ 재정확대 정책을 실시할 경우 현재보다 물가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
- ④ 만약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